

한해 4만여명 유입...유소년·생산가능 인구 증가 주목

전남 귀농·귀촌인 인구절벽 해법 뭘까

지난 한 해동안 전남으로 귀농·귀촌한 도시민이 4만명을 넘어섰다. 구례·곡성군 인구보다 많은 수다. 귀농·귀촌이 급격한 인구 감소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남 인구 문제 해법이 될 지 주목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추진한 출산율·출생아 수 증가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일자리 및 귀농·귀촌 등 인구 유입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도는 청년, 일자리, 귀농·귀어·귀촌, 다자녀 지원 등 생애주기별-인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한 '2030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오는 9월께 내놓을 방침이다.

◇인구 감소 가속화=전남 인구 200만 명이 무너진 지 13년 만인 지난해 3월 다시 190만 명이 붕괴됐다.

전남은 지난 2013년 6월 전국 시·도 최초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이듬해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만큼 인구 절벽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으로 시군 중 3분의 2 이상이 소멸 위험에 직면해 이대로 가면 도(道)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래 인구 추계도 암울하다. 2035년 전남 인구는 178만4651명으로, 현재보다 10만 명 이상 더 줄어들 것으로 전남도는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유소년 인구(0~14세)와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2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교육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성장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주부터 정착까지 풀 서비스=전남도와 시군은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중 하나가 귀농·귀촌 정착 지원이다.

인구정책 출산→유입 전환

각 군 귀농·귀촌 유치 안간힘 인구 급감 속 한가닥 희망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도시민이 살아보고 결정하도록 '귀농 학교'를 열고, 농업창업자금과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 등 이주부터 정착까지 '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마을주민을 귀농·귀촌인 멘토로 활용해 이들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장성군은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상대로 귀농 실습 교육을 하고 있다. 농업에 새로 도전하는 귀농인이 자신이 선택한 농장에서 실습하며 영농 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귀농인과 선도 농가를 1대1로 연결해 기술적 지원은 물론 농촌정착을 위한 조언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목 특성에 따라 3~7개월간 현장 실습을 한다. 또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이 농업인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귀농 및 귀촌 체험을 하는 '도시민 삼시세끼 농촌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가족 단위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있다.

곡성군은 '소(通)동(行)락(樂) 곡성 귀농학교' 열고 있다. '소통하고 함께하면 즐겁다'는 의미다. 9개 과정으로 운영되는 곡성 귀농학교는 기초영농기술 교육을 포함해 절기력과 재배력, 생활용품 기술, 귀농 귀촌 융화교육, 농가사례 발표, 농장 견학과 체험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화순군은 귀농 100가구 유치를 목표로 이주부터 정착까지 '풀'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옛 서울역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우선, 3억원의 농업창업자금과 7500만원의 주택구입 자금 융자 지원을 비롯해 귀농학교 운영, 소형비닐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지원, 3~5개월간의 귀농연수, 농가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한다.

진도군은 귀농·귀어인들에게 토지나 건물 구입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귀농인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원스톱 상담과 빈집·농업정보 제공, 박람회 참가, 농촌문화체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청년을 돌아오는 전남을 만드는 게 인구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전남도 정무부지사 누가 맡나

이용섭·김영록호 첫 인사 관심 산하 기관장 캠프 인사 등 거론

민선 7기를 시작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첫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국회의원, 장관 등 행정과 정치를 섭렵하면서 인사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인사정책관을 직속으로 신설할 예정이며, 김 지사는 개방형 공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재를 영입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첫 인사로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문화경제부시장 인선을 고심중이다. 당초 경제를 전담한 관리 출신이 논의됐지만 최근엔 지역을 잘 알고, 문화에도 해박한 인사로 후보군을 압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 시장은 "조직을 어느 정도 정비했으니 이번 주말에 인사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경제부시장을 '개방형 공모'로 하게 돼 있는 광주시 행정기구설치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부시장을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도시공사, 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원, 컨벤션뷰로, 시립미술관 등 현재 공직인 기관장 인선도 조만간 마무리해야 한다. 이 시장이 광주 도시발전, 경제, 산업, 문화 등의 분야에서 자신의 공약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직접 초빙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경제형 정무부지사 인선을 통해 자신의 인사 철학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낙후된 지역발

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와 투자 유치가 중요하다"면서 "일자리와 만들고 중앙과 연계해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각 부처와 협력할 수 있는 인사를 개방형으로 공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무부지사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관가에서는 기재부 국고국장을 지낸 순천 출신 위성백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과 자치분권위원회에 파견된 기재부 고위공무원, 기재부 현직 국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의회·언론 등 정무에 능통한 선거캠프 고위 관계자의 이름도 지속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그는 원활한 대외 협력과 더불어 조직 내부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지사가 경제부지사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정무부보 기용설도 나오고 있다.

정책특보에는 김 지사의 복심으로 알려진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씨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외협력 장구 역할을 하는 도민소통실장 역시 캠프 인사 중용설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 산하 기관장 인사도 관심이다. 특히 전남도 유일 지방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 사장에 누가 임명될 지 눈길을 끈다. 전남개발공사는 남양신도시·여수 경도 개발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연간 예산이 4800억원에 달해 전남도 산하기관 중 '노르자위'로 꼽힌다. 도 안팎에서 김 지사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전남여성플라자 원장, 전남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 선임에도 시선이 쏠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문대통령 양대노총 위원장 만났다

사회적 대화 복귀 등 주목 노동계 갈등 풀릴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공개로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갈등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꼭 필요하다"며 양대 노총에 사회적 대화 참가를 주문했다고 한국노총이 전했다.

양대 노총은 지난 5월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양국화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해결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에 합의하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민주노총

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노동계 현안에 관한 양대 노총 위원장의 의견도 청취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이 지켜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기준도 요청하고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해 "문제 있는 조항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상용차 정리해고 문제 등 현안도 거론하고 "노·정협약이 즉각 이뤄지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대 노총 위원장 요구에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 '6·13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려는 개혁에 속도를 조금 더 내겠다', 'ILO 협약 기준을 추진하겠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8년 무안공항 직항 출발

이제 편리하게 가까운 무안공항에서 조이투어와 함께 하세요! 푸~우~욱~

일본 기타큐슈, 오사카, 러시아, 세부, 북해도, 다낭, 방콕, 대만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 LTD

여행 길이 늘거늘 동반자!!!

다임 조이투어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 금 환

가까운 무안에서 일본 기타큐슈 온천여행

5월 27일 이후[화(4일), 금(3일), 일(3일)] 정기편 확정

오후 출발(화, 금, 일) 무안(18:00) - 기타큐슈(19:10) / 기타큐슈(19:40) - 무안(20:50)

- 정기편 확정 기간 한정 특가(6/5~7/20) -

- ◆ 기타큐슈 에어텔 3일 299,000원
- ◆ 기타큐슈, 삿부, 유후인 3일 [실속] 399,000원~ / [폭격] 499,000원~
- ◆ 기타큐슈, 삿부, 유후인 4일 [실속] 559,000원~ / [폭격] 599,000원~
- ◆ 기타큐슈 아마구치 3일 [폭격] 549,000원~ ※ 불포항사항: 무안공항 승수 및 기사/가이드 경비

무안 ↔ 오사카 정기편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나만의 자유여행

[월, 목(3박4일)] / 수, 금(2박3일) * 세미패키지 실속, 무안 출발/오전출발 *

- ◆ 오사카, 나라, 교토 실속(세미더블) 699,000원~
- ◆ 오사카, 와카야마, 교토, 나라 4일 949,000원~

무안 ↔ 토토리(요나고) 직항 전세기

7월 27일 부터(총5회)[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 2박3일 699,000원(ALL 포함) ◆ 3박4일 799,000원(ALL 포함)
- ◆ 추석 연휴 스케줄(9/22, 23, 24, 25~) 2박3일 998,000원(ALL 포함)

휴게 여행, 힐링, 힐링 여행... 무안 ↔ 마쓰모토(나가노 북알프스) 직항 전세기

오모마치 & 알펜루트 & 마쓰모토 관광

9월 23일 부터[금, 일(2박3일) / 화(3박4일)]

- ◆ 2박3일 1,048,000원~ ◆ 3박4일 1,198,000원~

무안 ↔ 북해도 전세기 취항!! 7/18부터 ~ 8/21까지 총 19회

7월 18, 21, 24, 25, 27, 28, 30, 31 8월 2, 3, 5, 6, 8, 9, 11, 12, 14, 17

[폭격] 준특급+특급 1,290,000원 [고폭격] 특급 1,450,000원
[골프] 특급 1,790,000원 * 국경수기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무안 ↔ 블라디/하바롭 전세기 취항!! 7/11부터 ~ 8/16까지 총 10회

[알뜰] 3성급 1,090,000원~ [실속] 5성급+3성급 1,190,000원~
[폭격] 5성급 1,350,000원~

무안 ↔ 세부 직항 전세기 [팬퍼시픽 연합]

6월 30일 출발 부터(수(3박4일) / 토(4박5일))

- ◆ 세부 정통 패키지 (3박4일) 599,000원~ / (4박5일) 649,000원~

* 팬퍼시픽항공 양방향권 - 음료 서비스 / 기사 담요 서비스 * 일급 / 준특급 / 특급 리프트 3박(2인실 기준), 1억원 여행저보증 * 특식 2회, 리프트식 3회, 코코넛 오일(오리 드라이프) & 코코넛 비누 1SET(포장) * 필리핀 현지 공항세(700페소/1인당) 포함 * 체임(다이빙 무료강습, 라우리부 디스카버리투어, 민속공연 관람, 마사지) * 시내관광(아벨라의 십자가, 산페드로요새 또는 마탄성당, 막탄수라인 등) * \$80 상당의 아일랜드 호텔투어(세부도 중심) 포함 * 출발 날짜별로 요금 및 포함사항과 불포항사항이 다르니 문의합니다.

무안 ↔ 대만 정기편(제주항공) 7월 27일 부터(일, 월 출발)

- ◆ 대만, 화롄, 지우펀, 야류, 서문정 3박4일 799,000원~
- ◆ 대만, 서문정, 지우펀, 야류 2박3일 629,000원~

무안 ↔ 제주도

- ◆ 2박3일(주중) 249,000원~ 2박3일(주말) 324,000원~

무안 ↔ 다낭 직항 전세기

5월 18일(금) 이후 [화(3박4일), 금(3박5일)] 푸우욱~

화 출발 무안(08:05) - 다낭(10:40) / 다낭(14:40) - 무안(20:30)
금 출발 무안(21:35) - 다낭(00:10) / 다낭(01:05) - 무안(06:55)

VN 베트남 국영항공(스카이팀) 차별화된 기내 서비스

A-321-200(비즈니스 13석, 이코노미 161석)
기내식, 음료, 맥주, 기내담요, 베개, 비디오 상영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599,000원~
[골 드]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76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4일 799,000원~
[프리미엄] 다낭 · 후에 · 호이안 5일 969,000원~

무안 ↔ 방콕 · 파타야 정기편(제주항공)

5월 2일 부터(수, 목(3박5일) / 토, 일(4박6일))

- ◆ [준특급] 649,000원~ ◆ [특급] 699,000원~

* 양국정부인허가조건 * 운항스케줄이 항공사 및 천재지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발 날짜와 인원 수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르니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기약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제등다2003-1호

* 공휴조근: 여행기간 1인 기준, 여행기간별 기일(여행일)은 1억원, 국내여행 5천만원, 관광진흥법(기금) 기금 및 부부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기간별 기일 * 예약시 계약서(주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인원: 기사/가이드 명사,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황에 따라 다름

남만이 넘치는 지중해 크루즈 10일

(이탈리아, 베니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 광주 출/도착, ALL포함 4,600,000원

*모든 여행 상품에 따라 포함사항과 불 포함사항이 다르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